

총선 D-90 ... 범여권 '단일노선' 공감대 확산

'이명박 시대' 지역현안·공약 점검

5 여수엑스포 성공 지원

'원샷 통합' '제3지대 신당' 주목

현재 구조론 한나라당에 참패 불보듯 수도권·충청권 연합 공천론도 제기

18대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범여권 각 진영에서 한나라당에 맞설 '단일대오 형성'에 대한 갖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의 분열 구조로 총선에 나선다면 한나라당에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범여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범여권의 정치·지역적 기반인 호남 민심의 흐름이 총선에서의 '범여권 단일대오 형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도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선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연합공천론'이다.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서 범여권 제정파가 연합공천을 통해 한나라당 후보와 진검 승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은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도 현실적으로 연합공천이 어렵고 누가 당선되더라도 근본적으로 민주·개혁 진영의 뿌리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범여권

진영이 전면전을 벌여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출신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권력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연합공천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반면 김효석 원내대표 등은 현역의원이 2명에 불과한 민주당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출범할 민주당의 세 지도부가 분위기 반전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촉구를 끈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시도된바 있는 '범여권 원샷 대통합론'도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동안 범여권 제정파의 불신의 깊이가 깊어져 쌓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라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한화갑 전 민주당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혜자)가 9일 광주여성단체회관 4층 강당에 마련한 신년인사회에서 광주지역 24개 여성단체 회원들과 박광태 시장,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등 각계 인사 120여명이 참석,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아·송희성 전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영자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박원 시의회위원장, 박광태 시장, 김혜자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전주연 서구청장, 유태명 동구청장. /나령주기자 mjna@kwangju.co.kr

대표가 들고나온 '제3지대 신당론'도 주목받고 있다.

소위 친노 및 참여정부 핵심세력을 떼어 두고 제3지대에서 새로운 중도·민주세력이 모여 한나라당에 맞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어떻게든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수도권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총선을 앞둔 이합집산이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전망이 밝지 않다.

특히,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사면·복권과 함께 제3지대 신당론을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그 저의에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

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총선 정국에 돌입한 만큼 현실적으로 범여권이 대통합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범여권의 연합공천론이 현실성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월 총선 전략공천 하겠다"

신당 김효석 대표 '대폭 물갈이' 밝혀 파문 예상

대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서 당 후보를 전략공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당 후보는 경선으로 선출하는 대신,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을 전략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 때는) 경선이 아닌, 당 공천특위가 여론조사 등을 감안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경선을 하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는 최고위원회에서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현역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경선을 하지 않는 대신 참신성과 중량감이 있는 인사를 적극 발탁, 현재 대선으로 확산하고 있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또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총선 전략의 하나로 신당에 제의한 '연합공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연합공천은 세(勢)가 비슷하고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방대 10여개 거점대학으로 집중 육성

■ 흥싱크뱅크 '대입 자율화 로드맵'

국제전략연구원(GSI)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양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바른정책연구원(BPI)이 2012년까지 대입 완전자율화를 달성하는 정책대안을 최근 백서를 통해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정책연구원은 '엠비(MB) 브레인'으로 불리는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가 원장으로 있고 연구원 관계자들이 대통령직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과 자문교수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백서에는 교육공약인 특성화고 300개 육성 추진계획과 함께 교육부, 과기부, 노동부 교육 기능을 통합한 가칭 '교육·과학교육부' 신설 및 청와대 교육수석실 신설, 교원자격증 경신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9일 바른정책연구원 '바른정책백서'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생활 자율화를 위해 2009년 대입입무를 대학간 협의체

(대교협)로 이관하고 2012년 대입 완전자율화를 이루는 내용의 '대학입시 자율화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

로드맵은 올해부터 대입 자율화를 위해 여건 조성에 나서 2009년 대입 업무를 대학간 협의체에 이관하고 각 대학의 자율화 여건 조성을 평가해 2012년 대입 자율화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대학경쟁력 강화정책으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분화해 육성하고 국·공립대학은 법인화, 지방대학은 10여개 거점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첨단과학기술과 글로벌 금융·통상·외교 분야에서 각각 10만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유학생도 10만명 유치하며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1%로 끌어올린다.

특성화고 300개 육성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은 재단 전입금 부담을 현실화하고 선지원 후추첨제로 입시과열을 방지하면서 자율형사립고를 확대하고 기숙학교는 폐교를 이용한다는 내용이다. /연광뉴스

대회후 지역경제 살릴 사후 지원책 끌어내야

전남도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한 13건의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을 위한 전남발전 정책과제를 이명박 당시 후보측에 제시했다.

이 후보측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적극 지원'을 전남 발전 7대 공약 중 하나로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2012여수엑스포는 경제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야당 대선후보로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전세계 정치·경제 지도자

해 '여수박람회를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해양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해 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정부 지원단을 발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여수지역을 연안관리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이순신 유적 복원 등을 통해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여수박람회의 개최로 고용·생산·부가가치 창출을 최대화해 전남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약만을 놓고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전남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변치 않도록 꾸준히 지역의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개최 전·

후에도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박람회장을 건설하고, 크루즈항과 수변공원 등 해양관광 복합시설을 조성해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광주시당도 선거운을 코앞에 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전남 대선 공약 발표를 통해 2012여수엑스포 개최 준비 예산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하며 여수엑스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이명박 당선인이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여수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원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전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도 사후 관리 및 활용에 소홀하는 바람에 파급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

다. /채희종기자 chae@

KWANGJU DAILY 3rd NATIONAL MARATHON
제43회 광주일보 3인절 전국마라톤대회

일시: 2008. 1. 15(토) 08:00
장소: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및 동남권 일대(광주-전남)간 도로
참가비용: 참가비 5,000원, 배낭대여 2,000원, 보험료 1,000원
등록비: 2008. 1. 15(토) 08:00
신청기간: 2008. 1. 15(토) 08:00 ~ 1. 22(토) 23:59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www.kjmarathon.com) 또는 전화 신청(02-6394-1111)

주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
주관: 광주광역시 체육진흥재단, 전라남도 체육진흥재단, 광주일보

문의: 02-6394-1111
www.kjmarathon.com